

연관 갤러리(3/4) ▼ | 갤주소 복사 | 차단설

조호| 181

즉, 나라의 대군들을 가르치는 스승으로서 과거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을 천거한 것이다.



2019.11.27
GRAND OPEN
LINEAGE II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6월 5일 갑신 1번째기사 1418년 명 영락(永樂) 16년

세자에게 관교를 내리고 유정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국역 원문

[원본 보기](#)

세자(世子)에게 관고(管敎)³⁰⁰를 내려 주고, **임씨(沈氏)**를 봉(封)하여 **경빈(敬嬪)**으로 삼고, **계(桂)**를 강봉(降封)하여 **양빈 대군(襄嬪大君)**으로 삼고, 숙빈 김씨(淑嬪金氏)를 **삼한 국대부빈(三韓國大夫人)**으로 삼았는데, **심씨(申氏)**와 **심온(申溫)**의 딸이다. **우영헌(柳凝憲)**을 영동판윤사(敬興府尹)로, **한성경(韓馨敬)**을 영의정판서(領議政府書)로, **임씨(鄭氏)**를 우의정(右議政)으로, **이씨(李氏)**를 좌의정(左議政)으로, **이시(致仕)**하게 하고, **이(李)**를 **함평도부사(咸平道府使)**로, **이(李)**를 **판문도도정부사(潘門道都正府使)**로, **심온(申溫)**을 조문 판서(趙文判書)로, **이(李)**를 **조문 판서(趙文判書)**로, **정적(鄭績)**을 조문 판서(趙文判書)로, **유원(柳源)**을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 세자 좌빈객(世子左賓客)으로, **홍사성(洪思誠)**을 관조 판서 우빈객(世子右賓客)으로, **이지강(李之剛)**을 호조 참판 세자 좌부빈객(世子左副賓客)으로, **권유(權維)**를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 세자 우부빈객(世子右副賓客) 판문도원사(判文館元史), **윤희(尹希)**를 판문도감사(判文館監事), **김경익(金馨益)**을 보(補)예(禮)으로 삼아 예문관 직제학(藝文館直提學)으로, **우영(柳凝)**을 전사시(典典寺司)로, **정호(鄭瑬)**를 필선(弼善)으로 삼아 전서 소윤(典諫少尹)으로, **권도(權道)**를 직예문관(直藝文館)으로, **이수(李瑬)**를 문학(文學)으로 삼고, **변계량(李季良)**을 예조 판서, **김여사(金汝士)**를 한성부사(漢城府使)로, **이영관(李榮官)**을 충청도 도관찰사로, **이발(李發)**을 함경도 도관찰사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69장 A면 【국편영인본】 2책 232면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註 380] 관교(官敎) : 임명장.

【註 381】 치사(致仕): 나이가 많아 벼슬을 내려놓고 물러남. 조선조 때에는 당상관(堂上官)으로 치사하는 경우에 예조(禮曹)에서 대궐 고기와 술을 지급하였으며, 국가의 중대한 일사로 인하여 치사하지 못하는 70세 이상된 1품관에게는 궐(几)과 장(杖)을 하사하였음. 귀로(歸路).

그리고 세종이 즉위하기 직전에 이수(李綬)의 벼슬을 문학(文學)으로 승진시켜 주었다.

세종실록 1권, 세종 즉위년 8월 11일 무자 3번째기사 1418년 명 영락(永樂) 16년

세자의 사빈을 겸했던 박은·이원·유창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국역 원문

[원본 보기](#)

백은은 좌의정 영경연사(左議政領經筵事)로, 이원(李源)을 우의정 영경연사(右議政領經筵事)로, 유창(劉昌)을 옥전 부원군(玉川府院君)으로, 변계방을 예조 판서 지경연사(禮曹判書知經筵事)로, 유권(柳權)을 예조판 대학헌 지경연사(僉文獻大提學領經筵事)로, 탁신(卓愼)을 예조 참판 동지경연사(禮曹參判同知經筵事)로, 이지경(李之卿)을 호조 참판 동지경연사(戶曹參判同知經筵事)로, 양명철(楊明澈)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하연(河演)을 지신사(知申事)로, 함옥(咸玉)을 좌대언(左代言)으로, 성영(成瑍)을 좌부대언(左副代言)으로, 사경감(寺卿監正) 이수(李壽)를 동부대언(同副代言)으로, 윤치화(尹致和)를 판문전사 경연 시랑관(判文院事經筵侍郞官)으로, 경호(鄭浩)를 판각문전사 경연 시랑관(判事寶文院事經筵侍郞官)으로 삼았다. 처음에 이원·유창·유권·이지경은 모두 세자의 사빈(師賓)을 겸한 까닭으로 벼슬을 고쳐 서후하였다. 벼슬에 상장이 있기를 전하여도 나서 임금을 예치르게

“**이명백**은 자신사(知申事)가 된 지 한 달이 넘지 않았으니, 내가 이미 왕위를 내어 놓았으니 **명백**도 역시 벼슬을 내놓아야 하며, 주상이 일찍이 **이수**에게 배웠으니, 지금 벼룩 걱위가 낫다 하더라. 또 대언(代言) 벼슬을 줄 만하니, 모두 특징 발경하도록 하라.”

고 하였다. 시속에서 벼슬의 임기가 차서 갈리는 것을 다 거관(去官)이라고 말한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장 A면 【국편영인본】 2책 261면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세종실록 1권, 세종 즉위년 8월 27일 갑진 1번째기사 1418년 명 영락(永樂) 16년

박자청·조말생·김여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姓名					日期
----	--	--	--	--	----

[원본 보기](#)

박자경(朴子卿)은 참찬의정부사(參議政府司事), **조말생**을 병조 판서로, **김여지**(金汝知)를 형조 판서로, **최운덕**을 중군 도총제(中軍都總制)로, **마천목**(馬天牧)을 **장흥군**(長興君)으로, **노구신**을 판한 선주사(判漢城府使)로, **이원(李元)**을 이조 참찬으로, **이덕억**을 병조 참찬으로, **심원봉**(沈元楓)을 공군(公賁賞)을 모두 작위 총제(左總制)로, **하경록**(河敬祿)을 우군 총제로, **허연(許演)**·**심정**(沈正)을 모두 중군 동지총제(中軍同知總制)로, **성달생**(成達生)을 좌군 동지총제로, **이승(李承)**을 동지돈녕주사(同知敦寧府司事)로, **오승**(吳承)을 함흥부 우윤(咸興府右尹)으로, **함상적**(韓尙積)을 안주부 우윤(安肅府右尹)으로, **심상(沈尙)**을 경창부 우윤(慶昌府右尹)으로, **경상(鄭尙)**을 예조 참의로, **유익**을 병부 참의로, **조치(曹致)**를 형조 참의로, **성명(成明)**을 우대헌(右侍)으로, **김적정**(金積正)을 작부대(佐副代)으로, **이수**(李維)를 우부대헌으로, **원효(尹孝)**를 부대헌(副代官)으로, 좌대헌(左代官) **김효손**(金孝孫)을 지병조사(知兵曹司事)로, **최관(崔觀)**을 좌간기(左司諫大夫)로, **김고**(金高)를 사헌 장령(司憲掌令)으로, **김상직**(金尙直)·**이경손**(李敬孫)·**김강**(金剛)을 병조 정랑으로, **경계(鄭景)**·**정자영**·**유홍옥**(柳亨玉)을 병조 좌랑으로 각각 임명하였다. **권**은 계주과 함길에 없고 성격이 가혹하고 까다로우며 법도에는 청형 공경을 무기로, **윤**은 섬음이 멀리하기를 좋아하고 또 주색으로 더욱 일을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2장 8면 【국편영인본】 2책 264면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세종실록 1권, 세종 즉위년 9월 15일 임술 1번째기사 1418년 명 영락(永樂) 16년

우박·염유온·김두남 등에게 관직을 준다

지역 일문

[원본 보기](#)

유비(虞備)를 중군총제(中軍總制)로 삼고, 영유원(鄭有源)과 김두남(金斗南)을 좌군·우군총제(左軍·右軍總制)로, 이숙호(李叔好)를 우군 등지총제(右軍同知總制)로, 민견(閔堅)을 인녕부윤(仁寧府尹)으로, 유장(柳璋)을 예조 참의(禮曹參議)로, 성엄(成堧)을 좌대언(左代言)으로, 김익정(金益精)을 우대언(右代言)으로, 이수(李壽)를 좌부대언(左副代言)으로, 윤희(尹熙)를 우부대언(右副代言)으로, 최사강(崔士康)을 우부대언(同副代言)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0장 8면 【국편영인본】 2책 269면

【분류】인사-임면(任免)

세종은 즉위하자 자신의 스승 이수를 동부대언(승정원에서 형조의 사무를 관장하는 정3품)으로 승진 시켜줬으며

16일 후에는 우부대언으로 승진시켜줬고 다음달에는 좌부대언으로 초고속 파격승진을 시켜주었다.

이수는 과거시험에 합격하지도 않았는데(취사 取士의 형식으로 벼슬에 오름) 자신의 제자가 왕이 되었다는 이유로 벼슬이 좌부대언까지 올라간 것이다

세종실록 1권, 세종 즉위년 10월 18일 갑오 2번째기사 1418년 명 영락(永樂) 16년

장가가는 우부대언 이수에게 말 등을 하사하다

임금이 우부대언 이수(李壽)에게 안장 갖춘 말과 갓·신과 옷 한 벌을 하사하니, 이는 수가 장가를 들게 되었기 때문이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1장 A면 【국편영인본】 2책 274면
【분류】왕실-사금(賜給)

좌부대언으로 승진한 뒤 1달 후 이수가 장가가게 되자 세종은 특별히 신경써주며 안장 갖춘 말, 갓, 신, 옷을 하사해 줬다

왕이 신경써준것을 봤을때 첩은 아니었던것 같고 정처였던듯 싶는데 어째서 결혼을 늦게 했는지는 기록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전처가 일찍 죽었거나 벼슬공부를 하느라 결혼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였을것 같다

세종실록 2권, 세종 즉위년 11월 4일 경술 3번째기사 1418년 명 영락(永樂) 16년

노귀산·하자중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노귀산(盧龜山)으로 우군 도총제(右軍都總制)를 삼고, 하자중(河自宗)과 탁신(卓愼)으로 공안부윤(奉安府尹)을 삼고, 강희중(姜希仲)과 한옹(韓雍)으로 인수부윤(仁壽府尹)을 삼고, 홍어방(洪汝方)으로 예조 참판을 삼고, 성임(成林)으로 형조 참판을 삼고, 김익경(金益精)으로 좌대언(左代言)을 삼고, 이수(李壽)로 우대언(右代言)을 삼고, 윤희(尹淮)로 좌부대언(左副代言)을 삼고, 최사강(崔士康)으로 우부대언(右副代言)을 삼고, 유영(柳穎)으로 동부대언(同副代言)을 삼고, 이유(李維)로 함길도 도관찰사(鄜靑察使)를 삼고, 김경(金鏡)으로 전주 부윤(全州府尹)을 삼고, 경상(鄭尙)으로 판충주목사(判忠州牧事)를 삼았다. 하자중은 하연의 아버지이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3장 B면 【국편영인본】 2책 277면
【분류】인사-임면(任免)

이수가 좌부대언으로 승진한지 2달도 안되서 세종은 이수를 우대언으로 또 승진시켜줬다.

세종은 자신의 스승에게 노골적으로 편애를 드러내며 특별히 아꼈던것 같다.

세종실록 4권, 세종 1년 6월 21일 갑오 2번째기사 1419년 명 영락(永樂) 17년

부락인이 고을 관장의 죄를 고하지 못하게 하는 법의 제정에 대해 논의하다

임금이 인정전에 나아가 조회 받고, 또 편전(便殿)에 나아가 경사를 보았다. 허조가 간절히 청하기를,

“전날에 상사하였던 바, 부락에 사는 백성이 그 고을 관장(官長)의 범죄한 것을 고하지 못하게 하여, 풍속을 두텁게 하는 법을 마련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다시 참고해 보고자 함은, 이미 이루어진 법을 마음대로 함부로 고칠 수 없는 때문이다.”

하니, 여러 의논이 분분하여 한결같지 않으나, 다만 이수(李壽) 혼자 말하기를,

“새로 고치는 것이 불가하니, 만일 부락인이 탐관 오리의 잘못을 고하여 하소연하지 못한다면, 방자한 행동이 기탄이 없어서 그 해가 백성에게 미칠 것은 필연한 것입니다.”

하였다. 계사(啓事)가 끝나매, 여러 신하에게 술을 다섯 순배 돌려 먹이고 파연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18장 A면 【국편영인본】 2책 323면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사법-법제(法制)

허조라는 신하가 풍속을 두텁게 한다는 명목으로 부민고소금지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자

신하들의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수 혼자만 "백성이 탐관오리의 잘못을 고소하지 못하면 백성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세종 > 자료열람 > 세종실록 > 세종 1년 > 세종 1년 12월 > 세종 1년 12월 7일

세종실록 6권, 세종 1년 12월 7일 경축 2번째기사 1419년 명 영락(永樂) 17년

유관·맹사상·정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국역

입문

답본 보기

유관(柳寬)을 판중군도총제부사(判中軍都總制府事), 연사종(延辭宗)을 곡산군(谷山君), 맹사성(孟思誠)을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 경진(鄭津)을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안수산(安壽山)을 공조 참판, 문귀(文貴)를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 이안우(李安壽)를 우군 동지총제(右軍同知總制), 이춘생(李春生)을 중군 동지총제(中軍同知總制), 최운(崔雲)·성달생(成達生)·이수(李壽)를 좌군 동지총제(左軍同知總制), 박규(朴規)를 중군 동지총제, 조계생(趙啓生)을 인수부윤(仁壽府尹), 유장(柳璋)을 인녕부윤(仁寧府尹), 장운화(張雲華)를 이조 참의, 이양몽(李養蒙)을 호조 참의, 최사강(崔士康)을 예조 참의, 윤회(尹淮)를 병조 참의, 윤보도(尹耆老)를 우군 첨총제(右軍僉總制), 정초(鄭招)를 우대언(右代言), 유영(柳穎)을 좌부대언(左副代言), 조서도(趙瑞老)를 우부대언(右副代言), 권도(權道)를 동부대언(同副代言), 전직(全直)을 겸 지병조사(兼知兵曹事), 한해(韓海)를 겸 지사간원사(兼知司諫院事), 박서생(朴瑞生)을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 송인산(宋仁山)을 사헌부 장령(掌令), 최문손(崔文孫)을 우대언(右代言), 강희중(姜希仲)을 충청도 관찰사, 박실(朴實)을 판충주목사(判洪州牧事), 박영(朴榮)을 판해주목사(判海州牧事), 경수홍을 판나주목사(判羅州牧事)를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10장 A면 【국편영인본】 2책 34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이수가 우대언으로 승진한지 1달 후, 세종은 이수를 좌군 동지총제로 또 승진시켜줬다

세종 > 자료열람 > 세종실록 > 세종 4년 > 세종 4년 2월 > 세종 4년 2월 29일

세종실록 15권, 세종 4년 2월 29일 병진 4번째기사 1422년 명 영락(永樂) 20년

황해도 관찰사 이수(李壽)와 경력 하형을 처벌하다

국역

입문

답본 보기

황해도 관찰사 이수(李壽)와 경력 하형(河衡) 등이 합부로 음탕하고, 법도가 없어서, 관기(官妓)를 거느리고 도내(道內)에 돌아다니면서 혹은 말을 나란히 타고 다니기도 하였다. 하형은 기생의 어머니가 죽어도 분상(奔喪)하지 못하게 하고, 이수는 체임(遞任)되는 날에도 기생을 이끌고 돌아왔다. 일이 발각되매, 현부(憲府)에서 이를 탄핵하여 형(刑)에 처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이수(李壽)는 특별히 용서하고, 하형은 곤장 80대를 치고 그 직첩(職牒)을 회수하였다. 이수는 임금이 임찍이 그에게 배웠으므로, 초야(草野)에서 일어나 몇 해가 되지 않아서 벼슬이 재주(宰輔)에 이르니, 조정과 민간에서 놀랍게 보았는데, 하루 아침에 감사가 되매 합부로 음탕하고 마음대로 행동하여 나라의 법을 범하니, 식자(識者)들이 그를 비웃었다.

【태백산사고본】 5책 15권 12장 A면 【국편영인본】 2책 476면

【분류】 사법-형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인물(人物) / 인사-관리(管理) / 윤리(倫理)

그리고 세종 2~3년간 이수(李壽)에 관련된 기록이 없다가 세종 4년에 황해도 관찰사 이수(李壽)에 관련된 기록이 나오는데, 아마 그 사이에 벼슬이 황해도 관찰사까지 올라간것 같다

이수는 세종의 뒷배를 믿고 파격 승진으로 황해도 관찰사까지 올라가자 오만방자 해져서 관기를 거느리고 도내를 돌아다니며 말을 타고 달리며 놀았다고 한다

심지어 이수는 체임(遞任, 정해진 임기가 차서 벼슬이 해임됨)되는 날에도 기생을 이끌고 돌아왔다고 한다

현부에서 이 사실을 고발하고 이수(李壽)와 하형(河衡)을 처벌하기를 청하였으나 세종은 하형만 벌하고 이수는 특별히 용서해줬다

초야에서 시작해 몇년 지나지 않아 벼슬이 크게 오른것을 보고 모두 놀랍게 보았는데, 하루아침에 감사가 되자 방탕하게 행동하는것을 보고 식자들이 비웃었다고 한다

세종 > 자료열람 > 세종실록 > 세종 5년 > 세종 5년 9월 > 세종 5년 9월 29일

세종실록 21권, 세종 5년 9월 29일 경미 2번째기사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형조 판서 이발·예문관 제학 이수(李壽)가 면직되다

국역

입문

답본 보기

형조 판서 이발(李發)과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 이수(李壽)가 면직(免職)되었다. 처음에 태종(太宗)이 돌아가시니, 이발과 이수가 부고사(訃告使)와 부사(副使)가 되어 돌아올 때 의주(義州)를 지나다가 김윤신(金乙辛)·최윤복(崔潤福)이 준 표수(標敍)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태백산사고본】 7책 21권 20장 A면 【국편영인본】 2책 557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치안(治安)

그렇게 세종의 비호를 받으며 죄를 저질러도 처벌 받지 않았으나 1년 후에 뇌물사건을 들켜 결국 면직되게 되었다

태종이 죽었을때 이수는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의주를 지날때 뇌물을 받은것을 들킨것이다

세종 자신의 아버지가 죽었을때, 자신의 스승이자 특별히 아끼는 신하를 믿고 보냈더니 그 사이에 또 뇌물을 받아서 도저히 감싸줄수가 없었던것이다



세종실록 23권, 세종 6년 3월 21일 경유 1번째기사1424년 명 홍학(洪奭) 22년

이화영·이맹근·조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화영(李和英)으로 판좌군부사(判左軍府事)를, 이맹근(李孟堅)으로 공조 판서를, 조서(趙師)로 우군 도총제(右軍都總制)를, 오승(吳陞)으로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를, 이수(李壽)로 인수부 윤(仁壽府尹)을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34장 A면 【국편영인본】 2책 588면

【분류】인사-임면(任免)

그러나 6개월 후, 세종은 이수를 인수부 윤(仁壽府尹)으로 임명해 준다.

세종실록 23권, 세종 7년 12월 4일 기사 3번째기사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이수·하연·이찬·경조·성악·손가홍·성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경(李穡)으로 가경 대부(嘉靖大夫) 은녕군(溫寧君)으로 삼고, 이수(李壽)로 중군 도총제(中軍都總制), 하연(河演)으로 이조 참판, 이진(李震)으로 병조 참판, 경초(鄭超)로 형조 참판, 성억(成億)으로 공조 참판, 손가홍(孫可弘)으로 동지돈녕부사, 성임(成林)으로 우군 총제(右軍總制), 이각(李格)·조노(趙魯)로 좌군 동지총제(左軍副知總制), 한상덕(韓尙德)·신개(申愷)로 좌군 총제, 권진(權鎭)·이경(李漸)으로 우군 동지총제, 허성(許誠)으로 좌사간(左司諫), 박안신(朴安臣)으로 우사간, 원광(元晃)으로 우정언(右正言)을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0책 30권 19장 8면 【국편영인본】 2책 703면

【분류】인사-임면(任免)

세종실록 47권, 세종 12년 1월 8일 가유 2번째기사1430년 명 신덕(宣德) 5년

권진·하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권진(權鎭)을 이조 판서로, 하조(許綽)를 의정부 찬성으로, 이수(李壽)를 병조 판서로, 최윤덕(崔允德)을 판중군부사(判中軍府事)로, 조노(趙魯)를 병조 참판으로, 유맹문(柳孟聞)을 첨총제(僉摠制)로, 박서생(朴瑞生)을 집현전 부제학으로, 변계손(卞季孫)을 우사간(右司諫)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4책 47권 3장 A면 【국편영인본】 3책 213면

【분류】인사-임면(任免)

그로부터 1년 후, 세종은 이수에게 중군 도총제의 벼슬을 내려줬고

그로부터 5년 후, 이수는 결국 병조판서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과거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세종의 총애를 힘입어 파격승진을 계속 하다가 벼슬이 병조판서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다.

세종실록 48권, 세종 12년 4월 17일 경해 2번째기사1430년 명 신덕(宣德) 5년

병조 판서 이수의 출기

병조 판서 이수(李壽)가 출하였다. 수의 자는 택지(擇之)이요, 봉산군(鳳山郡) 사람이었다. 젊어서 학문을 좋아하여 게으르게 하지 아니하고 정밀하게 연구하여 강론하니, 당시 사람들의 추앙하는 바가 되었다. **홍무** 병자년에 생원(生員) 시험에 1등으로 합격하고, **영락** 경인년에 **태공 대방**이 경학(經學)에 밝고 형실을 닦는 사람을 찾아 구하니, **성균관**에서 수를 추천하였는데, 부름을 받았다가 얼마 아니 되어 과거 공부할 한디는 이유로 사양하고 돌아갔다가, 이듬해에 직신사(知申事) **김여지(金汝知)**가 왕명을 받았고 편지를 보내기를, "지존께서 그대가 산야(山野)에 숨어 있음을 들으시고 특히 명하여 부르시니, 곧 길을 떠나 오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그가 서울에 도착하자 여러 대군(大君)에게 글을 가르치라고 명하였다. 임금^[37]이 감처(謙邸)에 계시실 때에 더욱 공경하여 예를 더하였으며, 수(壽)도 더욱 삼가고 조심하였다. 임진년에 종요의 주부(注簿)가 되었으며, 갑오년 가을에 **태공**이 **성균관**에 거동하여 선비를 뽑을 적에 수(壽)가 네째로 뽑히어 전사 주부(典祀注簿)를 제수(除授)하였고, 공조(工曹)와 예조(禮曹) 두 조(曹)의 경랑으로 누차 친진(進奏)하였다가, 경유년에 전사 소윤(典祀少尹)에 임명되고, 이듬해 **세종**이 즉위하자 선공 정(繕工正)으로 있는 것을 동부대언(同副代言)으로 특수(特授)하고, 또 그 이듬해에 동지총제(同知摠制)에 올랐더니, 얼마 아니 되어 늙은 아버지가 **항해**도에 있기 때문에 본도 감사로 나갔다가, 이듬해에 돌아와서 동지총제가 되어 곧 이조 참판으로 옮기고, 을사년에 도총제(都摠制)에 임명되었다가 예문 대제학(藝文大提學)·의정부 참찬으로 옮기고, 경미년에 어머니가 죽으매 상례(喪禮)에 부도(厚廩)^[39]를 쓰지 아니하였다. 복(服)을 마치고 다시 도총제가 되었다가 이내 이조 판서로 옮기고, 다시 병조 판서로 옮겼는데 술에 취하여 말을 달리다가 떨어져서 이내 죽으니, 나이는 57세였다. 성품이 후중(厚重)하여 결치례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궁하든지 통(通)하든지, 얻든지 잃든지 일찍이 기쁜 빛이나 노여운 빛을 나타내지 아니하며, 처산(治産)함을 일삼지 않았으며, 여러 가지로 벼슬을 거쳤으니 항상 빈사(貧賤)의 지위를 띠고 있었으므로 더욱 부지런하고 삼가기를 더하였다. 부고가 들리니 임금이 놀라고 슬퍼하여 특히 위해서 거애(擧哀)^[38] 하고 3일 동안 철조(輓朝)하였다. 부의(歸窆)로 쌀과 콩 모두 50석을 주고, 동궁도 부의로 20석을 주었다. 예조 정랑 **경척(鄭穆)**에게 명하여 호상(禮饗)하게 하고, 또 직신사 **허성(許誠)**으로 하여금 예장(禮葬)의 가부(可否)를 의논케 하니, 좌의정 **황희**·우의정 **맹사상**·찬성 **하조** 등이, "수(壽)의 직위로는 비록 예장하는 예(例)에 미치지 못하나, 이미 은혜를 더하여 거애(擧哀)까지 하였으니, 예장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고 말하므로, 드디어 유사(有司)에 명하여 장례를 다스리게 하고, 시호(諡號)를 문경(文靖)이라 하니, 배우기를 부지런히 하고 문기를 좋아함인 문(文)이요, 몸을 굳슨히 가지고 말이 적음인 경(靖)이었다. 아들이 넷이 있으니 **구종(龜從)**·**서종(猷從)**·**복종(卜從)**·**길종(吉從)**이었다.

【태백산사고본】 15책 48권 8장 8면 【국편영인본】 3책 231면

【분류】인물(人物) / 왕실-사림(賜給) / 왕실-의식(儀式) / 인사-관리(管理)

【註 078】 임금 : 세종.

【註 079】 부도(厚廩) : 복분(福分)

그러나 병조판서까지 벼슬이 올라간지 3개월만에 이수는 갑작스럽게 죽었다.

그의 줄기에 따르면 '술에 취한채 말을 타고 달려가다 떨어져 죽었다'라고 적혀있다.

황해도 관찰사 시절 말을 타며 질주하고 다녔던 방탕한 버릇을 끝까지 못하고치고 술마시고 취한채 말을 타고 달리다가 결국 사고나서 어이 없게 죽은것이다.

20

개념

비추

3

히트

공유

신고

P-31

2019

오버솔 블랙라벨 화이트
OVERSOLE BLACK LABEL



7CM

원본 첨부파일 1
11.png

전체 리플 2개

등록순

○○ (175.223)	뭐야 센징이 센징한 이야기잖아
○○ (180.182)	조센징 나라에 센징하게 살다가 센징하게 죽었구나

1

댓글

닉네임

비밀번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다시본다

?

등록

전체글

개념글

수정

삭제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1339	설문	‘연예인 걱정 쓸모 없네’ 빗 엄청 빨리 갠아 놀란 스타는?	운영자	19.11.06	-	-
1263	공지	본 갤러리의 방침 안내 [3]	대동아공영	19.05.01	3047	74
20	공지	게시물 규제 강화에 대한 안내	대동아공영	19.04.26	840	31
39102	공지	유저 간 욕설, 비방, 인신공격에 대한 재언급 [3]	대동아공영	19.11.01	273	16
84	공지	별도 운영 갤러리 및 외부 대피처 링크 (rev. 2019.08.13) [6]	대동아공영	19.04.26	2648	76
616	공지	근현대사 갤러리 자료 복원을 위한 신청 접수 [7]	대동아공영	19.04.28	1487	25
77	공지	신고게시판	맥러빈	19.04.26	4236	61
5	공지	식민제국들 [4]	라트비아	19.04.12	4366	70
40512	뉴스	육일기 설명자료 한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도 게시 [2]	ㅂㅂ (60.138)	11.08	100	15
40515	일반	가생이닷컴은 나이가 40~50대가 주류라며? [4]	조선노예 (1.252)	00:50	65	6
40514	일반	한국이 고유문화가 있긴한가요? [4]	○○	00:26	76	7
40513	일반	일본에 부흥기는 언제쯤 다시찾아올거 같냐?	○○ (125.178)	11.08	45	1
40511	일반	내년에는 출생아 감소율이 더 높아질거 같지 않냐? [3]	○○ (182.224)	11.08	77	4
40510	일반	저출산 예측 - 내년에 일어날 일. [1]	○○ (115.137)	11.08	84	15
40509	일반	군갤같은데 상주하는 조센밀덕의 대표적인 두가지 특징 [1]	○○ (182.228)	11.08	57	6
40508	일반	곧 있으면 이수억 폭행 사건 1주년	와사비폭탄 (1.210)	11.08	50	3
40507	뉴스	日 "징용 판결 틀리고 육일기는 맞다" 억지 [4]	ㅂㅂ (130.34)	11.08	189	30
40505	일반	군사마이너갤러리 시발새끼들이 나 차단했네 [1]	○○ (183.78)	11.08	92	7
40501	일반	센국 저출산 여파 언제부터 나타날거같냐? [2]	○○ (223.62)	11.08	66	0
40498	일반	와... 유튜브 완전 험센징들의 소굴이 되었네? [3]	○○ (59.0)	11.08	119	6
40497	뉴스	육일기 세뇌중인 조센징 [10]	러러 (223.62)	11.08	269	27
40496	일반	먹기 너무 아까운 빵.. [10]	굽이굽이	11.08	258	19

로그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갤로그 | 즐겨찾기

세계 최초로 눈물막의 중요

TFC 스마일

2018년 SCI 논문 게재 | 스마일 엑스

수연제

수연제

개념글 [명명이]

불쌍한 xx..

산속에서 간식 한번도 못먹는

폐차장 개들 - 오늘 뭘 날이나?

요크셔테리어가 외로움을 많이

개 또잡았다

이불 바꾼 위험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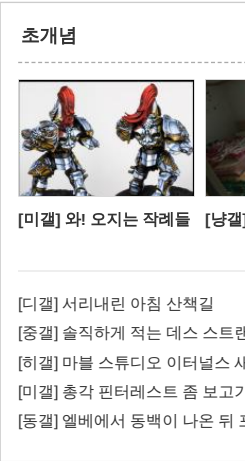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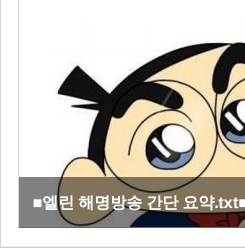
이슈줍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40495	일반	🌟 째쑤센징들은 참 일관성있게 못 생겼다 [1]	ㅇㅇ (39.7)	11.08	98	16
40494	일반	💬 한국에서 반일은 종교와도 같음	밀턴프리드먼 [7]	11.08	52	13
40493	일반	💬 <조선과 일본>에 안중근 설명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ㅇㅇ (222.234)	11.08	38	3
40492	일반	💬 모두 미국의 죄다 [3]	ㅇㅇ (222.109)	11.08	131	10
40491	일반	🌟 그래도 요즘 한국 상황 보면 상당히 고무적임 [3]	ㅇㅇ (222.109)	11.08	243	32
40490	자료보	💬 통계로 보는 흑인 인증. JPG	ㅇㅇ (211.230)	11.08	83	10
40489	논평	💬 평화헌법 개정 반대 주장보면	ㅇㅇ (223.62)	11.08	54	7
40488	일반	🌟 한국사는 진짜 파면 팔수록 개노답이네 ㅋㅋㅋㅋㅋㅋ [1]	ㅇㅇ (222.109)	11.08	279	38
40487	뉴스	🌟 낙태경험한 사람이 40프로	ㅇㅇ (182.224)	11.08	126	16
40479	뉴스	📞 지소미아 근황(feat.강경화)	ㅇㅇ (125.180)	11.08	246	22
40486	일반	💬 예전부터 궁금했던 불가사의 [1]	ㅇㅇ (63.225)	11.08	82	3
40485	뉴스	🌟 스가 관방 "문화상 사죄 편지 모른다"	ㄴㄹㄴㄹㄴㄹ [6]	11.08	257	27
40484	일반	🌟 일본의 경제제재는 자승자박nida 우리가 이기는nida	조선노예 (175.223)	11.08	144	15
40483	논평	🌟 노벨 문학상을 못 타는 게 언어탓? [6]	ㅇㅇ (211.36)	11.08	262	16
40482	일반	💬 조센진은 진짜 이해 못하는 게 [3]	ㅇㅇ (211.36)	11.08	222	20
40481	논평	🌟 일본에서 토착조센징들 아직도 많네 [3]	ㅇㅇ (110.70)	11.08	321	24
40480	일반	💬 강경화 센츄브에서 걸크러쉬로 빨리던데 [1]	ㅇㅇ (121.150)	11.08	91	5
40478	일반	🌟 일본어 위키백과에 시비거는 나무위키	와사비폭탄 (1.210)	11.08	215	22
40477	일반	💬 일간베스트도 유사극우사이트	와사비폭탄 (1.210)	11.08	77	10
40476	일반	💬 조센정부 하는 꼬라지보면 쿠팡단기알바도 취업했다고 포...	ㅇㅇ (39.113)	11.08	88	4
40475	일반	💬 취업난이 생기는 이유	ㅇㅇ (39.113)	11.08	79	8
40474	논평	📞 바쿠만, 만화를 말하다! [8]	유지군 (220.87)	11.08	200	13
40472	일반	🌟 진짜 센징이들 혼자서만 다른 세계 사는 것 같다 [2]	ㅇㅇ (211.118)	11.08	232	30
40467	뉴스	🌟 백종원 운전기사 채용 경쟁률 '300대 1'...너무 몰려 접수 조... [3]	ㅇㅇ (1.251)	11.08	217	17
40465	뉴스	🌟 씬센 진짜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이네 ㅋㅋㅋ [3]	ㅇㅇ (39.7)	11.08	341	32
40464	논평	🌟 미한동맹에 대한 생각 [1]	ㅇㅇ (175.223)	11.08	185	20
40463	일반	🌟 원래 이성이라면 서로 끌리는 게 자연의 순리다 [4]	하왓가버렸 [6]	11.08	267	24
40461	일반	💬 먹방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보는 거냐 [1]	ㅇㅇ (125.178)	11.08	77	7
40460	일반	🌟 반일센징이들이 싫어하는 노래와 깃발 [3]	악골센징참피 (58.227)	11.08	271	29

전체

▼

🔍



게이	연예/방송	스포츠	교육/금융/IT	여행/음식/생물	취미/생활
리그 오브 레전드 아이돌마스터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 포켓몬스터 엘소드 소울워커 카트라이더 클로저스 철권	TWICE 아이유 여자 연예인 AKB48 남자 연예인 유령을 잡아라 프로듀스 X 101 기타 국내 드라마 기타프로그램 기타 미국드라마	국내야구 해외축구 해외야구 NBA 헬스 농구 두산 베어스 롯데 자이언츠 피겨스케이팅 키움 히어로즈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컴퓨터 본체 스마트폰 공무원 자격증 고시, 시험 성형 탈모	여행-동남아 도시 편의점 주류 치킨 기타음식 아옹이 파충류, 양서류 멍멍이 동물,기타	스트리머 인터넷방송 판타지 대출 역학 토토 만화 애니-일본 상의 시계